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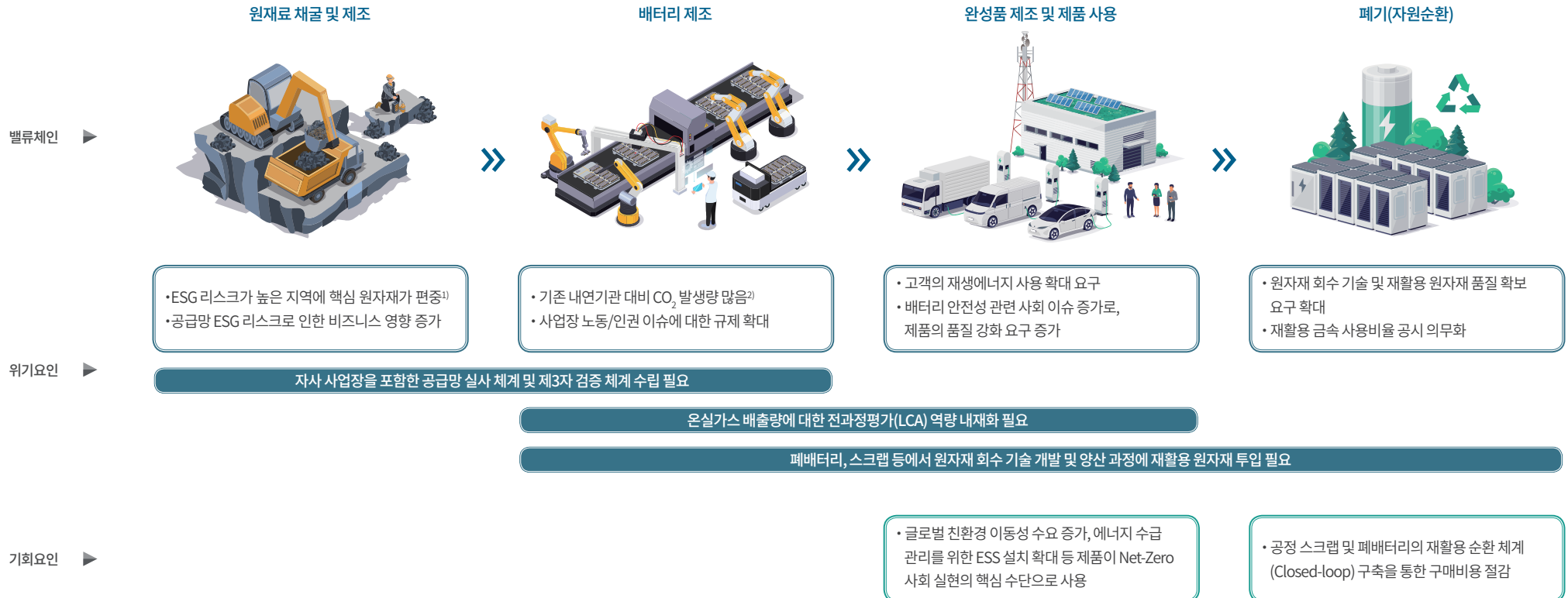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14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17
환경경영 추진 체계	18
리스크 관리 체계	19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ESG 관점의 밸류체인 관리 방안

배터리 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ESG 이슈가 연관된 산업으로서, 제품 사용단계의 친환경 가치에 대한 기회와 그 외 밸류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이러한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전달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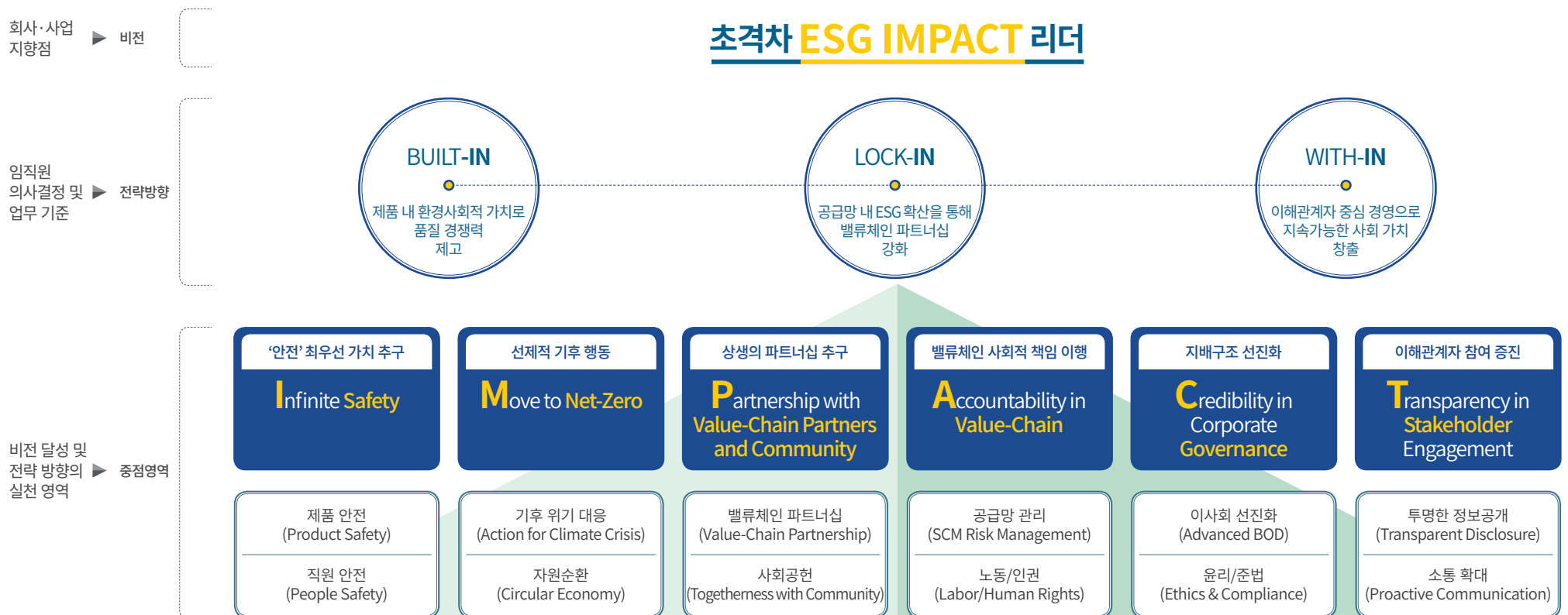
1) U.S. Geological Survey, 202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2: U.S. Geological Survey
 2) BloombergNEF, New Energy Outlook, 2020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삼성SDI는 2022년 3월, ‘에너지·소재 솔루션 분야에서의 초격차 ESG IMPACT 리더(‘Super-gap’ ESG IMPACT leader In Energy & Materials Solution)’ 비전을 향한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도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전략방향

비즈니스 측면과 사회 측면에서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제고’, ‘밸류체인 파트너십 강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3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I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일하는 방식에 내재화하고자 ‘BUILT-IN’, ‘LOCK-IN’, ‘WITH-IN’을 개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방향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으로 “내재화”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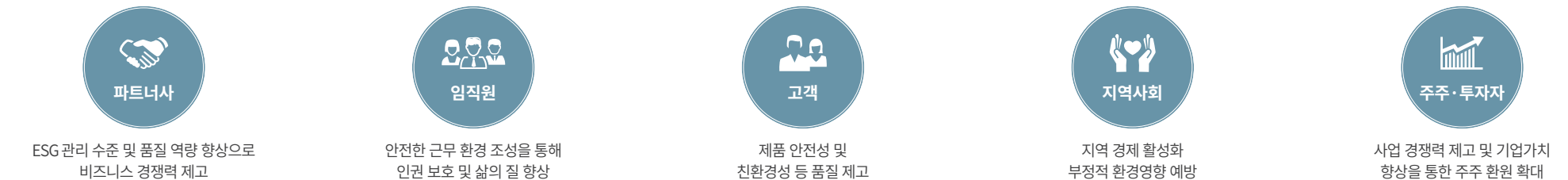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 중점 영역

중점 영역은 내재화의 우선 영역으로서, 배터리 산업에서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영역입니다. 사업과의 연관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6대 중점 영역 및 12대 세부 이슈로 구성되며, 각 중점 영역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아 ‘IMPACT’라는 삼성SDI만의 지속가능경영 브랜드 워딩을 개발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는 “긍정적인 영향”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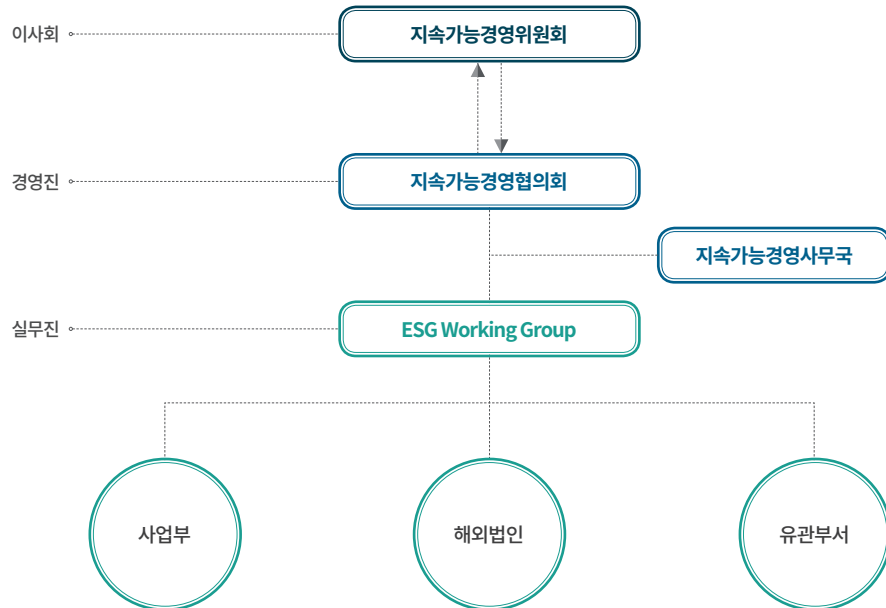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운영 체계

삼성SDI는 2022년 1월,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획팀 내의 ESG전략그룹을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속 조직인 '지속가능경영사무국'으로 재편하여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CEO가 주관하는 C-level 협의체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실무 단계에서의 지속가능경영 과제 대응 및 Communication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부, 해외법인, 유관부서 간 'ESG Working Group'을 구성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은 'ESG Working Group'과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삼성SDI가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김 덕 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공포·시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사회적 책임, 투명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최전선에서 기업은 그 전환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산 양식과 소비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ESG에 대한 인식과 활동 강화가 요구됩니다.

저희는 미래 세대와 지구 생명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CFO/지속가능경영
사무국장
부사장 김 종 성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SDI는 ESG 경영을 사업 성장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E)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온실가스 감축, 배터리 리사이클 확대, 사업장 폐기물 매립 최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S) 측면에서는 책임 있는 광물 소싱, EU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등 이사회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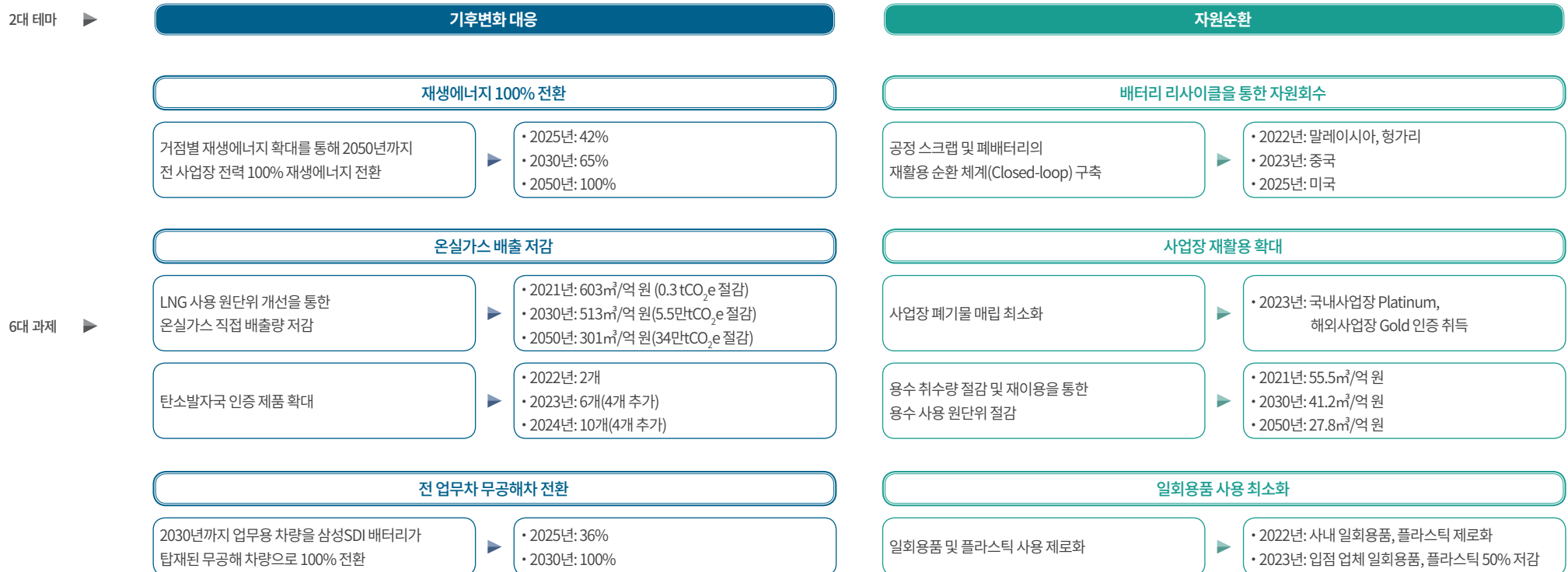
ESG 경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경영 추진 체계

환경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전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아젠다입니다. 삼성SDI는 특히 기후 변화 및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 기후행동'을 환경경영의 중점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이라는 2대 테마로 구분, 총 6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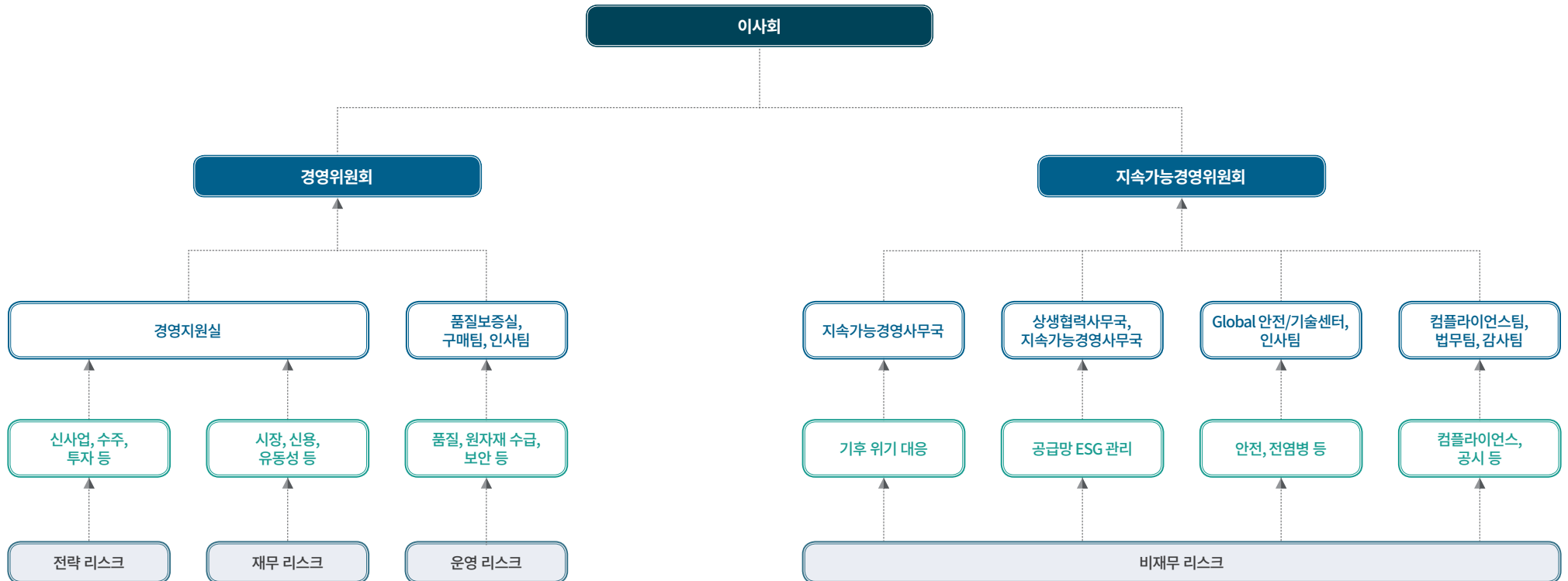
삼성SDI 환경경영 : 선제적 기후행동



리스크 관리 체계

전사 차원 리스크 관리 체계

삼성SDI 이사회는 사업, 재무, 안전환경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별 리스크와 담당 부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사업과 관련된 전략, 재무, 운영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 등이 있으며, 담당 부서의 리스크 점검 결과와 대응 전략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혹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분류 및 저감 활동

리스크	리스크 카테고리	설명	영향	저감 활동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	경제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ESS 등 Net-Zero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제품/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음 더욱이 광물 원자재의 매장지역과 공급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수급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자재 수급 경쟁 심화는 배터리 제조 원가 상승을 야기하며, 이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혹은 협력을 통해 원자재 수급 확보 자원 회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재활용 원자재 회수율을 높여 배터리 제조에 재투입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사회/환경 영향 및 관련 규제 발효 예정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사회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가 다수 매장되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특성상 채굴 과정에서 수질 및 토양 오염,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이슈가 존재함 향후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의 발효로 공급망 내 ESG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리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실사가 고객사(완성차 제조사 등)와의 공급 계약 시 의무 조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rtner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ESG Audit 제도를 통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강력한 고객 요구 및 관련 규제 발효 예정 (EU 배터리 규제(안))	환경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차 제조사는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에게 RE100 선언, SBTi 참여 등 적극적인 탄소발자국 감축 노력을 요구함 EU 배터리 규제(안) 발효를 통해 배터리 생산자는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정보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최대 배출량 상한선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부여 받을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배터리 규제(안)에 따라 탄소 발자국 정보 공시 의무와 최대 상한선 준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LCA 산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2050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